



송복음Life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당진순복음교회**

☎ 343-806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백암) 162-1
☎ (041) 352-5278(교회)356-5278(목사관)
홈페이지 <http://www.djfgcc.com>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전과 축복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만드시며 채워 주시는 손길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새삼 느껴지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구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니 사탄의 방해도 없고 형통하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 새겨집니다.

새 성전을 통한 우리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어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는 『내 집을 채우라』라는 표어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에 힘을 기우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신 7년 비전(50구역 건축, 300가정 구원, 1000명 교인 등록)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주하면 제 2의 부흥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서해안 시대는 더욱 현실화되어 가고 당진은 시 승격과 아울러 21세기를 열여가는 도시가 될 것인데 이에 어울리는 교회로서 당진복음화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요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 명칭을 “당진순복음교회”로 바꾸었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비기독교인을 맞이할 제도와 문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전파를 더욱 힘차게 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시대적 방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루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통일된 움직임과 협력, 그리고 사역의 동지의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내 일보다 귀하게 여기는 헌신과 충성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여!

목사와 성도가 일치된 신앙과 마음을 품고 영적 경주를 열정으로 치른다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2006년(병술년) 새 해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더 많이 체득하며 삶이 윤택해지고 바라는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담임목사 한승권 -



인생에 있어서 온전함과 의미는

당신이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어떤 물질에 있거나, 혹은 당신이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하며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닐 앤터슨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中-

주방에서 펼쳐지는 시상식...??

회원을 찾아다니면서 축하해주는 리브가 여선교..... 그런데 누구 생일이지....? 회장님인가...? 아님 회계...? 회원을 돌아보니 리브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간증

조영희 권사



좌 조영희 권사님 우 김홍본권사님

"집사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문서팀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막상 글로 나의 지난날을 써보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지난 날 아니 지금도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총을 부족한 글로 표현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방침이라 할까 나만의 신앙의 고집이라 할까 하는 것이 있다면 새벽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새벽 단을 쌓는 것입니다. 성품이 열정적이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귀중히 여기며 성경의 감동으로 나의 가슴에 진하게 와 닿는 말씀은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46:5)" 새벽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새벽에 대한 매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다시금 충전하듯 나의 지치고 곤한 육신도 새벽에 내리시는 은혜를 통하여 영육의 강건함이 회복되어 집니다.

나의 삶에 그리 웃을 일도 기뻐할 만한 일도 없었건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내 심장을 강하게 내리 렴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하였는데 나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지신다 하셨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는 순간 그늘진 나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느 때나 기뻐하는 모습을 지속하며 삶을 부정이 아닌 긍정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들은 벗겨지고 환경 전체가 나의 행함처럼 기뻐하는 모습, 웃을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의 직분까지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의 사역에 협력자로서 성도를 돌아보는 신앙..... 위로는 영광이요 아래는 본이 되는 신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속의 지혜

☞ 곰팡이가 핀 찬장은 소다를 풀어 닦으면 좋다

곰팡이가 핀 찬장은 소다를 풀어 닦는다. 부엌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편이다. 특히 비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찬장 같이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기 쉽다. 곰팡이가 핀 찬장은 물에 소다를 한 손가락 정도 풀어 헹궂에 적셔 닦는다. 그 다음, 세제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다시한번 닦으면 곰팡이가 깨끗이 없어진다

연탄길

김 미진 집사

"엄마, 나는 친구네나 친척집..어디를 가든지 책만 눈에 들어와요."

글을 알지 못하는 애기 때부터 동화 구연을 많이 해 준 이유일까! 이제 초등 6학년 인 딸 빈휘는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한다. 과연 빈휘는 요즘 어떤 내용의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에 아이의 책꽂이를 살피던 중 발견된 것이 바로 '연탄길' 이다

그저 요즘 딸아이의 정서를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 펼쳐든 책인데 한 장 한 장 장수를 더해 가며 어느 새 나는 가슴 뭉클함과 축축이 스며드는 깊은 감동과 만날 수 있었다. 요즘처럼 메마른 세상에 눈물과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연탄길' 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길 바래본다. 여러 편의 단편 이야기들 중 특히 내 마음을 더 울게 했던 '아내의 겨울'은 여러 날 머릿속에 여운으로 남아 내 남편을 좀 더 이해해 주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준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요즘처럼 이기적이어서 가정이 조각나고 깨지는 현실에 진정 나에게 큰 교훈이 되어 주었다. 남편의 실직과 배고픈 아이들.....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어려운 살림에 아내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월세도 제때 못주며 고기 냄새 풍기는 것이 미안한 아내는 집 주인이 모두 잠들었을 한밤중을 택하여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고기 파티를 연다. 그런데 고기를 입에 한가득 물고 우물우물 씹고 있는 남편은 목이 메인다. 고기 속에서 나온 씹다 버린 껌을 남편은 차마 아내 앞에서 뱉지 못하고 삼킬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살림을 위해 식당에 나가는 아내는 망썬 좋은 주인의 배려로 고기를 얻어왔다고 하였지만 그 고기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것을 아내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식당 주인 몰래 가져온 것이리라. 그 중에 손님이 씹다 버린 껌이 함께 섞여 온 것을 알며 남편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혹여 아내가 눈치라도 챌까봐, 그래서 미안해 할까봐, 가슴 아파할까봐 알지도 못하는 남이 씹다 버린 껌을 삼켜야만 했던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이런 가족의 사랑이 있기에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가정은 반드시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리라 생각한다.

한 겨울 시장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자식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열심을 다해 공부하여 성공하는 자식의 이야기..... 6번이나 경찰서를 갔던 아들이 아버가 대신한 범죄와 교도소 안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그동안의 빼돌려진 삶을 접으며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 등은 나에게 여러 가치를 생각하게 했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 주었다.

요즘 TV뉴스나 신문 등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전하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정의 붕괴다. 예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죽을지언정 자식을 죽이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 또한 어린 자식을 자신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희생시키고....그뿐인가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꺾어버리지 않는가! 정말 몸서리쳐지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며 경악하게 하고 있다.

부부의 팽팽한 대립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방황하며 떠돌고 있고 많은 이혼으로 사회가 혼란한 중에 있다. 하지만 '연탄길'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다른 세상이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요즘처럼 메마른 세상에 감동의 눈물을 주는 이야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단지 감동의 눈물만이 아니요,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게 하는 반성의 눈물도 섞여 있으리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시련 속에서 곳곳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들의 삶. 그것이 허구가 아니고 모두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이다.

내가 저들과 같이 불행하지 않음에 감사하며 때때로 생겨나는 이기적인 내 생각을 잠재울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한다. 이제 남편과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사랑하는 아내요 엄마가 되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보리라. 내 가정만..나만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기쁨을, 웃음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소망해 본다. 내게 이런 엄청난 깨우침을 준 '연탄길'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제2, 제3의 '연탄길' 주인공들이 탄생하길 바란다.

전사, 안수절사 임직자



웃이냐? 모냐?

팽팽한 경승전

웃을 던지는 모습 엄청 진지합니다.

과연 1등의 영광은

누구에게.....???



서먹한 사이에는 형제의 친밀함이
낯선 사이에는 자매의 따뜻함이
가득했던 하루 였습니다.
내년에 펼쳐질 적사대회를
기대해봅니다.



웃당진순복음교회는.....!

주
아
의
예
배



수
용
통
산
등
산
대
회

추수감사절찬양대회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그 중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은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울인촬영지



울동단헌신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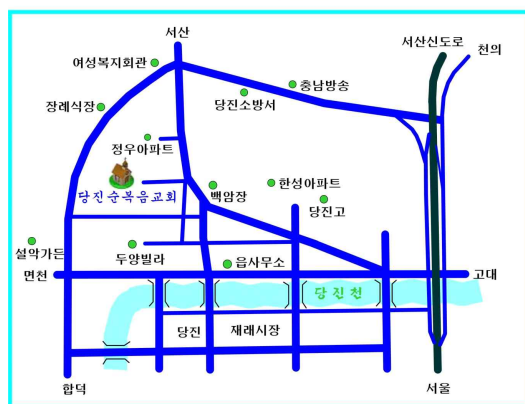
3월은 기쁨의 달

- * 임직예배
일시 : 3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대예배실
- * 리브가 여 선교회 헌신예배
일시 : 3월 5일 오후 7시

- *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 3월 13일~18일
주제 : 네 소원을 구하라

- * 성지순례
일시 : 3월 13일(월)
장소 : 국내
신청 : 3월 12일까지
- * 등산대회
일시 : 3월 27일(월)
장소 : 팔봉산(서산)
- * 영적성장세미나
일시 : 3월 30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주제 : 성도로서 두 영역의 지배

* 교회 오시는 길 *



예배시간안내

주일아침	오전 11:00
주일저녁	오후 7:00
수요아침	오전 11:00
수요저녁	오후 7:00
매일기도	새벽 5:00

교육기관

유치부	오후 3:00(주)
유초등부	오후 3:00(주)
중고등부	오후 5:00(토)
대학청년	오후 7:00(토)